

▶ 매일 INDEX



16면

농특산물 유통마케팅의 새 역사 쓰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음 1월 21일) 제2963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집중 유세 나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전북대학교 앞에서 집중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3면)

사회적 거리두기 “3주 더”

도, 정부 방침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출입명부 작성 중단 따라 출입자 관리 방역패스 위주로

전북지역 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3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시작도입은 협행 6인으로 유지되는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늘어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해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시간 일부 조정하고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기간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협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20일 이후가 아닌 1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소폭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9주간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해 영업시간에 대해서만 오후 10시까지로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해 행정·의료 인력이 미흡할 수 있다”면서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도, 시군 홈페이지에 있는 재택치료자 안내 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현진 도시사는 “오미크론 파고를 넘어 일상화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방역 수칙 준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학교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에 완화를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 손 자주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했다.

도는 도지사 주관으로 교육 분야, 농업·경제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과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오미크론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해 행정·의료 인력이 미흡할 수 있다”면서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도, 시군 홈페이지에 있는 재택치료자 안내 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현진 도시사는 “오미크론 파고를 넘어 일상화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방역 수칙 준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학교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에 완화를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 손 자주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초고속인터넷망 도서·벽지까지 확대

도내 농어촌 119개마을 100Mbps급 이용토록 광케이블 설치 구축

전북도는 2022년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을 통해 도내 119개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는 농어촌마을에서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설치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마을까지 광케이블을 매설하고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게 된다.

농어촌마을은 수익성이 낮아 통신사들이 광케이블 설치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초고속

인터넷을 도서·벽지까지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2020년 69개 마을을 2021년 12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보급했다. 올해는 28억 5,600만원을 투입해 119개 마을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1분 30초 정도에 영화 1편을 내려받을 수 있는 광대역 통신망이다. 영상회의와 실시간 화상교육, IPTV 등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호상 기자)

IT 기반 시설이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정보화 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마을의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9 이후 온라인 수업이나 비대면 화상회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도 농어촌마을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대가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도서·벽지마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올해 소방공무원 183명 채용… 24일부터 접수

전북소방본부는 2022년도 소방공무원 183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지난 18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부족한 소방안력 충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183명(남 154명·여 18명·양성 11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다.

채용 분야는 화재진압 90명, 소방관련학과 12명, 구급 40명, 구조 22명, 화

학 4명, 전기 2명, 차량장비 1명, 건축 1명, 정보통신 2명, 비데이터 2명, 항해사 2명, 기관사 2명, 회계 1명, 법무 1명, 항공장비사 1명 등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인터넷접수(<http://119.go.kr>)만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지난 19일 전주시 인후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정문 근처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전주시민신문 제20대)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도내 5125곳에 첨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5,125 곳에 첨부됐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흥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정된 때에는 그 사실

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9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

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

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2/4 입춘
2/19 우수
3/5 경칩

희망과
확신

2022년
코로나 종식!!

전주 현대옥
Korean Restaurant Since 1979